14강 - 퀴어 시네마의 흐름

이번 시간에는 페미니즘에 이어서, 페미니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는 퀴어 시네마라는 특별한 장르 혹은 .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어Queer라는 말은 새로운 용어죠. 이것은 1980년대 이후에 규정된 말입니다. 종래에는 게이, 레즈비언 등의 용어로 불렸어요. 게이라는 말로 많이 불렀었죠. 동성애적인 현상을 '게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퀴어'라는 말로 바꿔서 통일된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80년대 이후 90년대 들어와서 확립이 됐습니다. 이상한, 기묘한, 기괴한 등의 의미를 갖는 퀴어queer라는 말로 통일 됐어요.

퀴어 시네마라는 것은 흔히 동성애 영화를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동성애와 관계된 또 다른 현상들일 수 있어요. 남성, 여성의 이분법적인 질서를 벗어난 모든 성의 분류를 말합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이 있다고 봤을 때, 중성적인 측면에서 규정되는 것인데요. 복장 전환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복장 전환자라는 것은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복장 전환자의 측면도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 것이죠. 동성애와 복장전환자, 제3의 성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를 말합니다. 퀴어 시네마는 동성애자들이 등장하는 영화라든가 복장 전환자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장도착자 서사: <프리실라>

<프리실라The Adventures Of Priscilla, Queen Of The Desert>(1994)라는 영화를 살펴보면요. <프리실라>는 호주 영화인데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틱이라는 사람과 펠리시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복장 전환자 입니다. 남성이지만 둘 다 여성의 옷을 입는 것인데, 평소에는 남성 복장을 입지만 공연을 할때, 노래를 할 때는 여성의 옷을 입고 노래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드랙'이라는 말로 부르는데요. "드랙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공연을 여성화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복장전환자들이 두 명 있고. 버나뎃이라는 인물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한 사람입니다. 성전환자죠.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변했어요. 목소리도 여성스럽고요.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좀 중성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성적으로 이 사람은 완전 여성이 된 사람이죠. 이렇게 세 사람이 공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이 모두 '드랙퀸'이에요.

이 세 사람이 공연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마을마다 모멸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이들이 동성애자로 취급을 받고, 사회로부터 "에이즈균을 옮기는 나쁜 집단"이라며 천시와 모멸을 받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모멸을 받는 것은 이들이 불량배들한테 구타를 당한다든가, 일반 사람들도 이들의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복장을 보고서 굉장히 증오를 하게 되죠. "남자가 말이야 저렇게 여자처럼 하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모멸과 질시를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들은 상당히 내적

갈등을 겪게 되죠. 자기들 입장에서 떳떳하게 시작한 여행이고 공연인데,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가 속상한 거죠. 이들은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여곡절을 겪고, 종착지에 도착할 때, 비로소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제시하는 문제점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성애적인 질서로 강하게 억압하는가에 대한 비판이에요. 남성/여성이 분화돼있고, 분화된 이성이 결합하는 것만이 모범 답안이고, 나머지의 현상들은 다 '변태'라는 논리의 사회적 억압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변태로 규정되는 사회의 질서라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을 형평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억압의 하나일 뿐이지, 실제로 건강한 사회에서는 변태라고 규정되는—비정상이라고 규정되는 현상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페미니즘적인 것과의 연관입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에서 역시 퀴어를 억압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성hetero의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 하면 안 됩니다. 이성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결합을 하는데 있어 동등하게 결합이 되어야하고 동등한 권리를 둘 다 가져야하는데, 남성만이 우세한 권리를 갖고 여성을 억압합니다,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이 제3의 성을 억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이성애의 hetero-sexual 사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죠. 남성은 둘을 억압하는 결론이 나와요. 여성도 억압하고 제3의 성도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나 복장 전환자도 억압을 하는 거죠. 오로지 이성애주의면서 남성이 우월한 이성애주의 hetero-sexualism라는 것이죠. 이성애주의는 여성도 원하지 않고, 제3의 성도 원하지 않아요.

여성들은 극단적으로 동성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레즈비언들은 남성과의 삶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뛰쳐나간 동성애 레즈비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이성애 질서 때문에 피해 받은 여성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된 경우인 거죠. 동성애집단을 이루게 되고요. 그들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레즈비언 집단이 돼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억압적이고 남성 지배적이었으면 그 반대급부로 레즈비언 집단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이성애 질서라는 것이 형평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퀴어와 페미니즘의 결합: <올란도>

두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영화가 <올란도Olando>입니다. <올란도>는 영국 감독인 샐리 포터Sally Potter에 의해서 199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4백년을 남자였다가 여자로 성을 전환해서 살아가는 올란도라는 인물을 소재로 하는 영화인데요. 버지니아 울프Virgina

Woolf의 소설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1800년대에서 19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버지니아 울프가 이 소설을 썼을 당시(1928)에도히 파격적이었지만 신화적인 소설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성을 전환하는 문제는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환 수술을 하면 되니까 상상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시점에서 "성을 전환하면 어떨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상상에서 쓰인 소설이고 이를 바탕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에는 남성 올란도가 엘리자베스 여왕 밑에서 있다가 이후 400년의 시대를 경유합니다. 160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를 달려오는 영화예요. 1600년대 엘리자베스 시대에 여왕의 신하로서 남성 올란도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귀족중심사회이고요. 그 궁정에서 올란도가 여자를 만나게 되죠. 러시아의 공주 샤샤인데, 사랑의 감정에 빠졌지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올란도는 '여성이라는 것은 자신을-남성을 배반하는 존재'라는 선입관을 갖게 되고 그녀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의에 빠진 자신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시를 읽고 문학에 빠져 살면서, 문학과 예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터키에 원정을 가게 돼요. 터키의 부족장을 만나게 되면서 심한 정신적인 갈등을 얻게 됩니다. 중동은 지금도 일부다처제 사회인 것처럼 가부장적인 질서가 굉장히 강한 나라죠. 남성들의 우정, 남성들의 강한 지위, 권력, 결속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올란도는 가부장적 질서가 원주민들과 실제로 서민들과 타민족들을 인종적으로 억압하고 또한 여성을 억압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보게된 것이죠. 심한 정신적 혼돈에 빠진 결과 자기가 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환상적인 이야기죠.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가 200살 정도 된건데, 현실적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 시간의 관념도 갖지 않습니다.
여성 올란도가 탄생을 한 것인데, 이 여성 올란도가 또한 시련을 겪게 돼요. 여성으로 변하다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몰수당하게 됩니다. 당시 1800년대만 해도 여성에게 상속권이 없고 여성은 소유권이 없어요. 남성 올란도였을 때 누렸던 것이 여성이 되니-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 여성이 되니 갑자기 지위가 하락이 되고, 재산, 집이며 하인이며 돈이며 모든 것들이 다 몰수돼요. 자기가 자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셜마딘이라는 남성인데 미국 남성이에요. 셜마딘은 올란도의 상처 난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이상적인 파트너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셜마딘은 마치 바람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한 여성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상과 야망을 쫓아서 바람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남자예요. 상처 난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상적인 좋은 성격으로 여자를 잘 대해주는 좋은 남성을 만난 올란도이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는 셜마딘의 성향으로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혼자 남겨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통에서 혼자 아이를 안고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남성들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남성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 중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애를 안고 뛰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여성들이 후손을 키워내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성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데만 열중하고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만 돌리는 거죠. 후손을 양육하는 것을 여성에게만 모두 내팽개치는 역사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남성을 증오스럽게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전해주죠. 역사의 현실에 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성이 어떻게 역사와 현실과 싸웠는가?"에 대한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요.

올란도는 아이를 낳은 후 자신의 책을 쓰고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출판사에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의 이야기다."라고 올란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작자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성으로서 태어나서 남성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썼던 소설 올란도의 진정한 주인공은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였고, 그러한 입장을 모든 관객들에게도 동일시된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올란도>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이가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찍고 다니는데, 그때 어머니인 올란도가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모습을 찍게 됩니다. 올란도의 두 눈에 보이는 환상이 양성의 신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자웅 동체의 양성의 신이 나타나면서, 인간에 대한 찬미-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지만, 서로 같은 '몸'이라는,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양성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올란도가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올란도>라는 은유적이고 상상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400년 동안 남성이었다가 여성이었다가 이렇게 반복된 삶의 한 인간을 그림으로써,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것이다,라는 시각을 던져줍니다. 왜 이 사회는 남성 여성을 가르고,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가치를 내세우느냐?"는 논리를 펴는데, 이것이 바로 퀴어적인 입장에서 제3의 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남성의 입장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억압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 변태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갈등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퀴어 이론에서는 '남성 가부장적인 이성애 질서'가 제3의 성을 억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고, 그럼으로 인해 이 사회가 억압의 사회 일변도로 나가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올란도>는 퀴어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퀴어는 '제3의 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란도가 남자였을 때의 느낌으로 보다가 중간에 여자로 변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여자가 앞에 봤던 남자 올란도였는데 지금 여자로 행세한단 말이죠, 어느 것이 진짜인가라는 질문에 당면하게 됩니다.

<프리실라>에서도 드랙퀸들이 노래를 하면 여자하고 똑 같죠. 그런데 분장실에 와서 가발을 벗고 화장을 지웁니다. 그러면 또 이들은 분명 남자이거든요. 이렇듯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모습이 이들의 진짜 모습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관객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관객으로 하여금 퀴어적인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혼란감' 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면, "~은 ~한 거야." 라고 사물의 현상을 확정지었던 것에 대한 부정이 생기면서, "그것은 틀린 거야." / "그것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확신의 결여'에서 생기는 '혼란'이거든요. 그 '확신'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 '확신'이 바로 ''이성애사회'가 기본적인 것이라고 바라봤던 인식'이거든요.
남성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측면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또 성의 관계를 이분법적 진리-질서로 바라봤고. 고정적인 것이거든요. "모름지기 남성은 이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 "남성은 행동적이고, 능동적이고, 힘이 있고, 강하고… / 여성은 수동적이고, 약하고, 순종적이고, 양보를 잘해야 되고, 착하고…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이분법의 성격 규정을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습적인 인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난 남자다/난 여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근거가 그것이거든요.

퀴어 영화들을 보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성도 여성화 된 사람도 있고, 여성도 남성화 된 사람도 있고. 또 남자도 때론 나약하고 여성도 때론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여자가 강하면 그 여자 성격이 나쁜 여자다." 이런 식으로 '여자가 강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퀴어이론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녀가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퀴어적인 관점이 영화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퀴어적 경향들

2000년 이후 영화에는 이런 문제들이 소재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 Flawless>(조엘 슈마허,1999), <소년은 울지 않는다Boys Don't Cry>(킴벌리 피어스,1999) 등이죠. 이런 영화들을 보면, "퀴어적 관점"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플로리스Flawless>(1999)를 보면, 복장전환자가 나오죠. 이 복장전환자를 싫어하는 전직 형사 로버트 드니로가 그 아파트에는 게이들도 있고, 그중에는 복장전환자도 있는데, 여성복장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남자들을 아주 눈꼴사납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따듯한 시선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혐오했는데, 이성애 주의적 관점을 가진 이 남자가 나중에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죠. 그들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복장전환자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년은 울지 않는다>라는 작품에서도 여성이 남성화된 여성이죠. 이 여성이 같은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죠. 감쪽같이 남의 눈을 속인 동성애 관계인데요. 표면적으로 이 여성은 남성과 같은 치장을 했기 때문에 -복장을 전환했기 때문에, 여성과 여성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요. 이 여성을 남성으로 생각을 했죠. 나중에 밝혀지죠. 이 여성의 복장을 벗겨보니 여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것이 밝혀지고부터 모든 것이 추악한 현실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레즈비언 커플이 추악한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레즈비언이 아니야."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여성은 남자처럼 하고 다닌 거예요. 남자처럼 똑같이 치장을 하고 다닌 것인데요,

이러한 치장은 자신의 내면적인 남성성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치장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겉으로 가장한 것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심해지고 그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한 인간이 죽었다가 다른 인간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정신적인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동성애 집단에서는 '커밍아웃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커밍아웃coming out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커밍아웃은 통과제의(通過祭儀)같이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한 인간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을 겪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재생, 새로 태어나는 과정과 같이 정신적으로 심한 곤경을 겪게 되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퀴어 시네마'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학적인 의미, 인권적 의미에서, 인간을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나누거나 단순히 남성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